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에게 보낸 공개서한 관련 세계적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 기자회견

-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최종 중단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 ‘Environmental Progress’ 대표)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에게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 한국원자력학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이클 쉘렌버거는 저명한 기후과학자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미 콜롬비아대 교수 등이 한국의 시민참여단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An Open Letter To the South Korean Citizen Members of the Jury on Nuclear Energy’)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10. 12.(목) 10:00~12: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회의실 2호

붙임 : 마이클 쉘렌버거 프로필 1부

마이클 셸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



마이클 셸렌버거는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 영웅”이며 그린북어워드(Green Book Award)를 수상한 작가이자 정책 전문가이다.

“환경주의의 종언(The Death of Environmentalism)”, “브레이크스루(Break Through)”, “신환경운동 성명(An Ecomodernist Manifesto)”, “진화(Evolve)”, “너의 괴물을 사랑하라(Love Your Monsters)”를 비롯하여 통찰력이 돋보이는 각종 저서 및 에세이의 공저자로 활약했으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네이처 에너지, 플로스

바이올로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기고하였다.

또한 17인의 선도적 학자 및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신환경운동 성명”, 레이첼 프리츠키(Rachel Pritzker)와 공동 집필한 “에너지 전환이 환경보호에 핵심적인 이유”, 테드엑스(TEDx) 강연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및 환경 정의에 관해 통합적 관점에서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원전 찬성 환경운동가로, 영화제 수상작이자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환경운동가들을 다룬 영화 “판도라의 약속(Pandora's Promise)”에 출연했고 “콜베어 리포트(The Colbert Report)”에도 등장했으며 CNN의 대담 프로 크로스파이어(Crossfire)에서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와 그리고 UCLA에서는 마크 제이콥슨(Mark Jacobson)과 원전에 대해 토론했다. 2016년 테드 강연에서는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How Fear of Nuclear Hurts the Environment)”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2007년 테드 노드하우스(Ted Nordhaus)와 공동 집필한 “브레이크스루(Break Through)”에 대해 타임지는 “선견지명”이 담긴 저서라고 평했으며 와이어드 매거진은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이래 환경론 관련 최대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브레이크스루 연구소(Breakthrough Institute)의 공동창립자이자 수석 연구원이고 2003년부터 2015까지는 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메사추세츠 공대(MIT)의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Future of Nuclear Institute)” 태스크포스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셸렌버거는 25여 년간 환경 및 사회 정의 운동에 매진해 왔다. 1990년대에는 미국삼나무 노생림(老生林)을 지켜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압력행사를 통해 나이키가 아시아 내 공장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2000년대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